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정미현* · 이경주**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인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선정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프로그램 처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1.42$, $P=0.1631$)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는데 집단에 따른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3.56$, $P=0.00$)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처치 후 사후검사에서 평균 차이를 보였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 집단 간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에서도 프로그램의 처치효과가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정되었으므로, 검사형태에 따른 각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6.61$, $P<0.000$)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낮으므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사전검사 실시 후 프로그램 처치를 가하고 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또, 각 하위 요인별로 평균차이 검정결과 유의수준이 모두 0.00보다 낮으므로, 집단1인 실험집단에서 각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의 검사결과 차이가 나타남으로서 모든 하위요인별 처치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부모교육, 양육효능감

논문 투고일: 2020. 7. 9. 최종심사일: 2020. 9. 3. 게재확정일: 2020. 9. 14.

* 남서울전문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Jung Mihyun, Nam seoul college, Seoul, Korea, E-mail: childrenk@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인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기초를 둔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주된 근원으로서 인간의 삶을 유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행동의 선택, 노력, 끈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타인에 의한 평가를 통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견해이며, 상황이나 환경, 행동영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케 하며 구체적인 행동에서의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양육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정미현, 2010; 정미현, 2011; 정미현, 2012),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성취경험(mastery experiences),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지지(verbal persuasion),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emotional states)라는 4가지 심리기제를 양육 상황에 적용시킨 개념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질·성별과 같은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과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양육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행동적 요인뿐 아니라 부모의 신념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Vance & Brandon, 2017).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4가지 심리기제를 양육상황에 적용시킨 것으로 기존의 많은 부모교육프로그램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보다도 신념의 변화를 강조한다.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미현, 2019).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나아가 아동의 자아효능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케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하였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Zhou, 2019). 많은 사회과학 이론가들도 신념이 행동을 예견하며, 신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신념의 변화는 양육행동에서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며, 가족에 대한 적응성과 응집성을 높여 줌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Davis-Kean et al, 2008).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연구동향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대화법 등 특정 기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곧 소멸되기 쉬우며 자녀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자녀의 강점을 지지하고 자녀와 함께 부모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자녀관계기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며 자녀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지하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 마음자세와 신뢰를 통해 자녀는 물론 부모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인 양육효능감 증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양육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효능감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전문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부모들에게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직원들의 부모교육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매우 가치로우면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부모교육자료로 개발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Parenting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PEIP)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지원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다니는 만 2~5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실험집단 4집단(40명), 통제집단 4집단(40명) 총 80명으로 처음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40명의 학부모 중 총 8회기의 프로그램에 8회기에 모두 참여한 학부모가 31명이었으므로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집단의 31명이 되었고 이와 짝을 맞추어 통제집단의 학부모 31명을 선정하여 모두 62명을 최종 분석하게 되었다(<표 1>참조).

<표 1> 연구대상의 집단 구분

집단구분	N=62
실험집단	31
통제집단	31

<표 1>에서 제시한 실험집단은 실험기간 동안 연구자가 개발한 양육효능감증진프로그램을 투입하는 집단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
자녀의 성별	남	22	35.5
	여	40	64.5
자녀의 나이	만 2세	8	12.9
	만 3세	21	33.9
	만 4세	20	32.3
	만 5세	13	21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35	56.5
	둘째	22	35.5
	세째이하	4	6.5
	외동	1	1.6
연구대상자 연령	20대	11	17.7
	30~35세	25	40.3
	36~40세	25	40.3
	40대 이후	1	1.6
배우자 연령	20대	9	14.5
	30~35세	20	32.3
	35~40세	32	51.6
	40대 이후	1	1.6
연구대상자의 직업	전업주부	35	56.5
	전문직	6	9.7
	사무직	5	8.1
	자영업	2	3.2
	기타	14	22.6
배우자의 직업	전문직	10	16.1
	사무직	16	25.8
	기술직	22	35.5
	자영업	10	16.1
	기타	4	6.5
가족의 형태	핵가족	54	87.1
	확대가족	8	12.9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표 3>참조).

<표 3> 실험설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₄		O ₅

X: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

O1, O4: 사전검사

O2, O5: 사후검사

3. 측정도구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2004)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표 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요인분석

		요인				
		1	2	3	4	5
양육지식	VAR00004	.773	.379	.050	.221	-.099
	VAR00005	.717	.132	.293	.187	.124
	VAR00006	.698	.124	.427	.266	.228
	VAR00021	.659	.403	.157	.073	.243
	VAR00023	.625	.120	.081	.480	.213
	VAR00008	.620	.451	.308	.166	.268
	VAR00007	.620	.305	.381	.235	.309
	VAR00032	.564	.292	.342	.323	.097
	VAR00012	.552	.298	.440	.269	.431
	VAR00035	.543	.292	.119	.509	.154
	VAR00031	.534	.127	.477	.484	.144
	VAR00019	.526	.383	.292	.412	.255
	VAR00030	.454	.135	.284	.416	.375
	VAR00034	.225	.761	.257	.318	-.058
양육태도	VAR00036	.412	.714	.186	.130	.149
	VAR00017	.268	.702	.140	.305	.275
	VAR00029	.224	.656	.504	.236	.125

	VAR00037	.387	.589	.072	.283	.443
	VAR00013	.464	.492	.322	.030	.395
자기조절 능력	VAR00002	.221	.073	.814	.244	.284
	VAR00003	.344	.237	.783	.160	.211
	VAR00033	.331	.334	.634	.179	.178
	VAR00028	.074	.305	.573	.394	.440
	VAR00001	.514	.453	.554	.183	.002
	VAR00009	.251	.183	.512	.302	.421
문제해결 능력	VAR00015	.157	.053	.122	.849	.292
	VAR00014	.162	.287	.230	.790	-.052
	VAR00016	.305	.119	.219	.686	.242
	VAR00024	.325	.306	.158	.673	.110
	VAR00010	.418	.373	.262	.454	.107
의사소통 능력	VAR00011	.113	-.030	.149	.103	.810
	VAR00025	.123	.243	.375	.326	.632
	VAR00020	.231	.435	.445	.036	.533
	VAR00022	.462	.450	.071	.220	.467
	VAR00026	.438	.452	.330	.132	.458
	VAR00027	.018	.329	.392	.453	.457
	VAR00018	.335	.365	.329	.281	.400
	고유값	7.221	5.424	5.263	5.174	4.096
	분산율	19.516	14.660	14.225	13.984	11.070
	누적분산율	19.516	34.176	48.401	62.385	73.455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 .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고, .70이상이면 적당한 것이며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고, .50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이나, 0.50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0.87로 꽤 좋으므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2486.11로 유의수준이 .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7.221, 설명비가 19.51%로 나타나 A 요인을, 요인 2는 고유값이 5.424, 설명비가 14.66%로 나타나 B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요인 3은 고유값이 5.263, 설명비가 14.22%로 나타나 C 요인을, 요인 4는 고유값이 5.174, 설명비가 13.98%로 나타나 D 요인을, 요인 5는 고유값이 4.096, 설명비가 11.07%로 나타나 E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행렬의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 혹은 문항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인 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각 변수 혹은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3이상이면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되므로 요인 1은 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 35, 요인 2는 13, 17, 29, 34, 36, 37, 요인 3은 1, 2, 3, 9, 28, 33, 요인 4는 10, 14, 15, 16, 24, 요인 5는 11, 18, 20, 22, 25, 26, 27이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분산의 73.455%를 설명하고 있어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한 본 연구의 척도를 문항양호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37개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scree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전체 변량의 73.455%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19.51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 35의 13개의 요인이 포함되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서 ‘양육지식’으로 명명하였다. MacPhee와 Miller-Heyl(2003)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이다.

요인 2는 13, 17, 29, 34, 36, 37의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변량의 14.660%를 설명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엄격한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

으로서 ‘양육태도’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가족이 적응적으로 기능하게 한다(Hofferth & Anderson, 2003).

요인 3은 1, 2, 3, 9, 28, 33의 6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4.225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상황에서 외적인 통제 대상이 없이도 특정행동과 관련된 선후요인을 파악하여 내적 통제에 의해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이다. 이는 행동적 자기조절과 정서적 자기조절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으로 명명하였다. Eisenberg와 동료들(1996, 1998)은 자기조절능력은 내적인 정서조절과 정서관련 행동조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의(attention), 통제(control), 충동성(impulsivity) 등이 포함되는데, 주의는 집중하는 능력, 통제는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 충동성은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요인 4는 10, 14, 15, 16, 24의 5개의 문항으로서 전체변량의 13.984를 설명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해결능력’으로 명명하였다. Mayer(1998)는 문제해결이란 주어진 상황을 문제해결의 목표상황으로 전환해가는 인지과정으로 규정한다. 즉, 문제란 목표상황이 아닌 현재 상태를 말하며, 문제해결이란 현재의 상황을 목표상황으로 변화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요인 5는 11, 18, 20, 22, 25, 26, 27의 7개의 문항으로서 전체변량의 11.070을 설명하고 있고, 개인 상호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효율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 ‘의사소통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양육지식(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 35 등 13문항), 양육태도(13, 17, 29, 34, 36, 37 등 6문항), 자기조절능력(1, 2, 3, 9, 28, 33 등 6문항), 문제해결능력(10, 14, 15, 16, 24 등 5문항), 의사소통능력(11, 18, 20, 22, 25, 26, 27 등 7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8이었다(<표 5>참조).

<표 5>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과 신뢰도

		문항수	Cronbach's α	반분신뢰도
	양육지식	13	.95	.94
	양육태도	6	.91	.90
양육효능감	자기조절능력	6	.92	.92
	문제해결능력	5	.89	.85
	의사소통능력	7	.89	.89
	양육효능감 전체	37	.88	.96

4. 프로그램 효과검증 절차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은 예비연구, 사전 검사,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1) 예비연구

예비조사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프로그램 참여 후 좋았던 점, 미흡했던 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 등을 서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과 이 프로그램의 실시 시간, 시기, 1회 실시시간, 참여자 수 등을 묻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했다. 예비연구는 2019년 3월~4월 까지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총 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부모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질문지로 받아 수정·보완하였고 부모들의 실제적 요구를 고려하였다. 질문지에는 좋았던 점, 미흡했던 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 등을 서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과 이 프로그램의 실시 시간, 시기, 1회 실시시간, 참여자 수 등을 묻는 폐쇄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2)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검사로 2019년 7월 12일~ 7월 30일 사이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하였다.

3)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 실시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은 2019년 8월 20일~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각각 8차시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1시~1시까지 진행되었다. 실험집단 부모들에게는 부모용 활동지가 배부 되었다.

4) 사후검사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처치가 끝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matched pair t test)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어떤 처치를 가하고 처치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사후검사에서 연구대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는 처치효과가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결과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matched pair t test)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어떤 처치를 가하고 처치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사후검사에서 연구대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는 처치효과가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 평균차이

집단 1과 집단 2의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1.42$, $p=0.16$) 유의수준 0.05보다 높으므로 평균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표 6>참조).

<표 6>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 평균차이

사전검사		N	M	SD	t
전체	실험집단	31	3.18	0.51	-1.42
	통제집단	31	3.42	0.78	
양육지식	실험집단	31	3.09	0.53	-1.74
	통제집단	31	3.47	0.81	
양육태도	실험집단	31	3.12	0.56	-0.86
	통제집단	31	3.38	0.79	
정서조절능력	실험집단	31	3.50	0.60	-0.26
	통제집단	31	3.68	1.02	
문제해결능력	실험집단	31	2.95	0.68	-1.96
	통제집단	31	3.38	0.81	
의사소통능력	실험집단	31	3.11	0.64	-1.37
	통제집단	31	3.43	0.78	

2. 집단에 따른 사후검사 평균차이

집단 1과 집단2의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3.56$, $P=0.0009$) 유의수준 0.05보다 낮으므로 평균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의 차이는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처치 후 사후검사에서 평균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 집단 간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낮으므로 모든 부분에서 집단 간 사후검사의 평균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집단에 따른 사후검사 평균차이

사후검사		N	M	SD	t
전체	실험집단	31	4.04	0.49	3.56
	통제집단	31	3.40	0.85	
양육지식	실험집단	31	3.09	0.47	3.67
	통제집단	31	3.44	0.86	
양육태도	실험집단	31	3.91	0.57	3.03
	통제집단	31	3.31	0.90	
정서조절능력	실험집단	31	4.21	0.46	2.93
	통제집단	31	3.62	0.94	
문제해결능력	실험집단	31	3.87	0.65	3.14
	통제집단	31	3.20	0.89	
의사소통능력	실험집단	31	3.95	0.53	3.81
	통제집단	31	3.29	0.84	

3. 실험집단에서의 사전 · 사후검사 평균차이

집단 간 사전검사의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정되어, 검사형태에 따른 각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실험집단에서 사전 ·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6.61$, $P<0.0001$)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낮으므로 평균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집단에서 사전 · 사후검사의 검사결과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으로서, 사전검사 실시 후 프로그램 처치를 가하고 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또, 각 하위 요인별로 평균차이 검정결과 유의수준이 모두 0.05보다 낮으므로, 실험집단에서 각 하위요인별 사전 · 사후검사의 검사결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실험집단		N	M	SD	t
전체	사전검사	31	3.18	0.51	-6.61
	사후검사	31	4.04	0.49	
양육지식	사전검사	31	3.09	0.54	-7.48

양육태도	사후검사	31	4.09	0.52	-5.29
	사전검사	31	3.12	0.56	
정서조절능력	사후검사	31	3.91	0.55	-4.72
	사전검사	31	3.50	0.65	
문제해결능력	사후검사	31	4.21	0.45	-5.25
	사전검사	31	2.94	0.65	
의사소통능력	사후검사	31	3.86	0.62	-5.60
	사전검사	31	3.11	0.62	
	사후검사	31	3.95	0.53	

4. 통제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통제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0.11$, $P=0.91$)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높으므로 평균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의 검사결과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처치를 가하지 않은 집단으로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전검사 실시 후 8주 후에 실시된 사후검사에서 효능감 점수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차이 검정결과 유의수준이 모두 0.05보다 높으므로, 통제집단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의 검사결과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통제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통제집단		N	M	SD	t
전체	사전검사	31	3.42	0.78	0.11
	사후검사	31	3.40	0.85	
양육지식	사전검사	31	3.47	0.83	0.00
	사후검사	31	3.44	0.86	
양육태도	사전검사	31	3.38	0.77	-0.13
	사후검사	31	3.31	0.87	
정서조절능력	사전검사	31	3.68	0.94	-0.13
	사후검사	31	3.62	0.90	
문제해결능력	사전검사	31	3.38	0.83	0.49
	사후검사	31	3.20	0.85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	31	3.43	0.76	0.46
	사후검사	31	3.28	0.8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기초를 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선정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프로그램 처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1. 논의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양육효능감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1.42$, $P=0.1631$)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는데 집단에 따른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3.56$, $P=0.00$)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처치 후 사후검사에서 평균 차이를 보였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 집단 간 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에서도 프로그램의 처치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최형성·정옥분, 2004; 최형성, 2005)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각 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정되었으므로, 검사형태에 따른 각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평균차이 검정 결과($t=-6.61$, $P<0.000$)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낮으므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사전검사 실시 후 프로그램 처치를 가하고 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또, 각 하위 요인별로 평균차이 검정결과 유의수준이 모두 0.00보다 낮으므로, 집단1인 실험집단에서 각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의 검사결과 차이가 나타남으로서 모든 하위요인별 처치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제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결과 평균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 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은 사전검사 실시 후 8주 후에 실시된 사후검사에서 효능감 점수의 변화가 없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족지원을 돕는 것이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것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와 자녀는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부모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자녀양육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양육효능감이란 양육상황에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지하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양육효능감 구성요소의 향상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본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이 증진되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본 프로그램은 매우 탄탄한 이론에 근거한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임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머니가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면서 만난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에 매우 열의를 가졌고 흥미로워 했다. 아버지로써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원했고, 직장으로 인해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휴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본 프로그램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 아버지를 교육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1회의 사후검증으로 이루어졌다. 단기간의 효과검증은 나타났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3개월 6개월 이후의 2차 3차 사후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되

었다. 예를 들면 양육효능감 관련변인연구, 양육효능감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등 양육의 행동에서 한 차원 넘어선 연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양육효능감 관련변인 연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매우 적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의 양육효능감 증진 효과검증만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양육효능감이 높고 낮음과 영유아의 기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혹은 양육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을 실시와 다양한 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증진 프로그램으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초가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지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정미현(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 개발. 부모교육연구, 7(1), 45-58.
- 정미현(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 부모교육연구, 8(1), 69-85.
- 정미현(2012).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2), 21-33.
- 정미현(2019).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부모교육연구, 16(2), 19-36.
- 최형성·정옥분(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최형성(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Vol. 4, pp. 307-337).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ondy, Eloise M. Maxh, Eric J. (1999). Parenting Efficacy,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failure, and Mothers' Reactions to Preschool Children's Misbehavior. *Child study journal*, 29(3). 157-173.
- Benedetto, L., Ingrassia. M. (2017). *Parental self efficacy in promoting children care and parenting quality*. 31-57. Intechopen.
- Davis-Kean, P. E., Collins, W. A., Bates, J. E., & Lansford, J. E. (2008). Changes in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and behaviors acros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9(5), 1257-1296.
- Vance, A., & Brandon, D. (2017). Delineating among parenting confidence,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mpet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40(4), 18-37.
- Zhou, Y., Yin, H, Wang, M., & Wang, J. (2019). The effect of family-focused psychoeducational therapy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children's parents on parenting self efficacy and emot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3(1), 17-22.

Abstract

The Effects of the Parenting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Jeong, Mi-hyun* · Lee, Gyeong 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arenting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The object of this program result by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 parent who had children.

For this purpose, It was established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effect on promotion of parenting efficacy to parent?

SPSS 15.0 for windows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bout parenting 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by the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parenting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On the pre-post t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ople show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measures of parenting efficacy program. On the pre test, the people showed low levels on parenting efficacy, but on the post test, the people showed high levels on parenting efficacy. Therefore parenting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in enhancing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Parental education, parenting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 Professor of Nam seoul college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